

## 20센트 다음에는 15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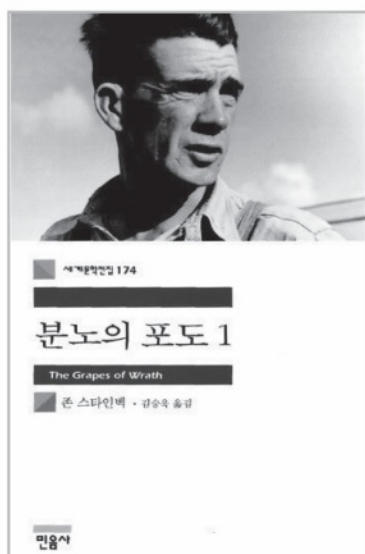
-오늘날에도 유효한 80년 전 소설, 『분노의 포도』

정 진 리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사무국장

서울은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에 불과하지만 국민 20%가 산다. 올해 5월 집계한 바에 따르면, 서울에 인천과 경기도를 더한 수도권에는 국민 과반인 50.6%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인구수가 감소되는 와중에도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이 과밀해지고 지방은 빠른 속도로 쇠락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불균형한 일자리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니 저마다 수도권만 바라보는 것이다. 분명 기형적인 풍경이지만, ‘모두가 병들었지만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는 어느 시 구절처럼, 이제 우리 모두 무엇이 뒤를쫓는지 체감하기 어려운 시점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나는 굶어 죽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요. 오히려 지금 굶어 죽는 편이 낫겠소.”

84년 전에 발표돼 작가 존 스타인벡에게 풀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분노의 포도』는 마치 지금 우리나라를 겨냥하고 집필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작품이다. 모세가 이집트를 벗어나는 출애굽기(Exodus)를 모티브로 한 이 장편소설은 어느 대가족이 일자리를 찾아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긴 여정을 담고 있다. 소작농으로 농사를 짓던 가족은 마을에 트랙터가 등장하며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처지에

몰린다. 마침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를 딸 인부를 구한다는 전단지가 날아오고, 가족은 일자리를 찾아 트럭에 몸을 싣고 미국 중남부에서 서부 끝자락으로 이어지는 1,600마일 길을 나선다.

그런데 떠나던 중 하룻밤을 묵은 캠프에서 일가족은 한 남자의 불길한 소리를 듣는다. 캘리포니아에서 왔다는 그는 자신이 굶어 죽기 위해 돌아가고 있다고 고백한다. 노란 전단지에는 800명의 인부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데, 아마도 광고지를 5,000매는 찍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2만 명이 보았을 터이니, 줄잡아 3,000명의 가족이 광고지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평생을 바친 터전을 떠나 온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는데 그곳의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일할 사람만 넘쳐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자는 자신이 겪은 일을 하나둘 꺼낸다.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가족들이 텐트를 치면, 광고지를 찍은 작자가 나타나 식량이 다 떨어졌는지를 살펴본다. 그러다 식량이 다 떨어지면 그제야 일자리를 얻고 싶냐고 묻고 어디 어디로 언제까지 나오라고 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숫자가 200명 정도라면 광고주는 500명에게 미끼를 던진다. 500명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돼서, 정작 오라는 장소에 가 보면 거기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와 있다. 그곳에서 광고주가

말한다. ‘한 시간에 20센트다.’ 그러면 절반이 떠난다. 하지만 다른 절반은 배가 고파서 비스킷 조각만 줘도 일하겠다고 남는다. 그렇게 허기진 이들이 복숭아나 목화를 따는 계약을 맺는 것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임금은 싸진다. 멀리 캘리포니아까지 떠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야기를 듣던 주인공 가족은 성한 남자들이 있는데 일없이 굶기라도 하겠느냐고 반문한다. 노동자 특유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이다. 하지만 소설은 그 마음이 어떻게 좌절되는지를 서사 전반에 걸쳐 차근차근 서술한다.

“당신은 그래 보라고. 그런데 나는 25센트짜리야. 당신은 20센트에 내 일을 뺏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배가 고파서 15센트에 당신 일을 도로 빼앗게 되겠지. 좋아! 어서 가서 일을 맡으라고.”

『분노의 포도』에서 캘리포니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상징하는가 하면 정확히는 그 역을 상징하는데, 일가족이 낙원이라 확신했던 캘리포니아는 결코 축복된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 작중인물들은 그곳이 “한 사람이 올릴 수 있는 일에 다섯 쌍의 팔이 그것을 올리겠다고 내밀고”, “한 사람의 양을 채울 만한 음식에 다섯 명이 입을 벌리는” 아비규환의 장소였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본의 아닌 경쟁 속에서 사

람들은 신경질적이 되고, 굶주리지 않으려 분투할수록 다른 이를 굶주리게 한다는 딜레마 가운데서 서서히 미쳐버린다. 이윽고 절도부터 살인까지 갖은 범죄가 발생하고 만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서울에 수많은 청년들이 몰린다. 땅덩어리가 좁으니 집세가 비싸고, 하는 수 없이 청년은 닭장 같은 좁은 평수에 웅크리고 몸을 의탁한다. 아니면 서울에서 적당히 거리를 둔 수도권으로 피신하고는 긴 출퇴근 시간을 감내한다. 그런가 하면 아침 9시와 저녁 6시 버스와 지하철은 마치 찢만두의 속처럼 가득 찬 사람들이 열기를 내뿜는다. 오직 그곳이 아니면 안 되기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듯 울며 겨자 먹기로 악조건을 견딘다. 우리가 아니어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집세를 낼 이들이 차고 넘치는 까닭이다. 이때 사람은 더 이상 하나의 고유한 인격체로 환대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환원 가능한, 돈 몇 푼으로 교환 가능한 존재로 전락한다. 지방은 지방대로 쇠락해 가고, 과밀할 대로 과밀해져 모두가 신음하는 수도권 중 낙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한편 소설의 제목인 '분노의 포도'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데, 분노가 포도처럼 영어짐을 뜻하기도 한다. 놀랍게도 우리 사회는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개인의 폭주만 도드라질 뿐, 분노를 영글고 집결하는 통찰

력을 잊어버린 듯 고요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분노의 포도』  
가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본세상**